

나주시, 이른 추석 대비 '고품질 나주배' 생산 당부



전국 최대 배 주산지 나주시가 올해 이른 추석 명절(9월 10일)에 대비해 나주배 명성 유지를 위한 고품질과 생산·유통을 농가에 당부했다. 27일 나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배꽃 개화기 좋은 날씨로 안정적인 작과가 이뤄

적과·봉지 씌우기·병해충 방제·시비관리 등 관리 필요 조기출하 위한 생장조정제(GA·에세폰) 사용 자제 당부

지면서 나주배 생산량은 평년 수준인 약 5만 톤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반복됐던 저온피해가 없어 다행인 반면에 농가 입장에서 과다작과로 인한 적과 작업이 까다로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이른 추석으로 인해 출하시기가 앞당겨져 저당도, 비정형과, 소과 등 저품질 배 유통에 대한 우려도 더해진다. 농업기술센터는 적과(열매숙기), 토양 관리, 병해충 방제 등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열매숙기는 5월초부터 2~3회 나눠서 실시하고 나무 세력을 고려해 적정 열매수를 조절해야 하며 최종 열매 수는 평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남기는 것이 저장양분 소모를 막고 조기 출하를 도모할 수 있다. 순파기(순숙기)는 5월 상순부터 가급적 일찍 실시하고 여름철 전정시기 신초 유인은 일조 환경에 방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처리해야 품질 향상 및 꽃눈 형성에 유리하다. 5월 중하순부터는 양분이 전환되는 시기로 추가 시비를 통해 양분을 공급하되 신초 정지

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일찍 시비를 끝내야 한다. 수경 이후 세포분열, 뿌리, 잎, 신초 등 생육이 가장 왕성하고 양·수분의 흡수량이 많은 시기에는 많은 수분이 필요함으로 10~15일 간 20~30mm 가량의 충분한 관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저온으로 인해 꽃눈정리에 소홀했던 과원에서는 과충 정리와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해당 과원에서는 다량의 과충염으로 약제 침투가 어려워 병해충 발생 및 증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흑성병·적성병·꼭지벌레·배나무이·복숭아순나방 등 해충별 방제시기 및 방법(아래 표 참고)을 숙지해야 한다. 신화·장조·슈퍼골드 등 배 신품종은 9월 초에 생산 가능한 조생품종이기 때문에 생장조

정제(GA·에세폰) 처리 없이 과과량 조절, 충분한 양수 확보 등을 통해 품종 본연의 맛을 구현하는 것이 좋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배연구소·나주배원협과 함께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수체 내 양·수분 관리 △토양관리 △숙기판정 기술지도 등 과원관리 현장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른 추석으로 인한 비정형과, 저품질과 출하 시 소비자 신뢰와 농가 소득은 물론 나주배 명성 유지에 악영향을 준다"며 "생장조정제와 다량의 영양제 처리가 아닌 수체관리와 병해충 적기 방제 등을 통한 고품질 과실 생산에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고추 적기 정식·정식 후 관리 당부

5월 상순이 정식 적기...늦서리 피해 주의

화순군이 노지 고추 정식 시기를 5월 상순으로 예측하고 적기 정식과 정식 후 바이러스 예방 등 관리를 당부했다. 노지 고추의 정식 시기는 늦서리 피해가 없는 5월 상순경이다. 군은 지난 2019년 5월 늦서리 발생으로 인해 노지 고추 피해가 컸던 만큼 노지 고추 농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종은 바이러스와 병충해 피해를 입지 않

은 건강한 모를 사용해야 한다. 뿌리의 노화가 없고 흰색의 굵은 뿌리가 잘 발달된 묘가 좋다. 정식 5~7일 전부터 외부 기온과 비슷하게 맞춰, 미리 환경에 적응시켜주는 순화 과정도 필요하다. 뿌리 활착을 위해 최저온도 15℃ 이상의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오전에 정식하는 것이 좋다. 구멍이 틀어지면 물을 채워 정식하는 구멍이 관수가 효과적이다.

군은 정식 시기·방법 안내와 함께 '고추 이상기상 피해경감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고추 우량 신품종 재배 실증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 고추 안정 생산도 지원한다. 이상기상 피해경감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은 고추 재배 농가 4곳에서 추진한다. 복합내병계 품종을 지원하는 고추 우량 신품종 재배 실증사업은 9곳 농가에 공급하고 시기별 재배기술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병해, 뿌리 활착 지연에 따른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적기 정식,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추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육을 위해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섬진강 물명 트레일 워킹'

5월 31일까지 진행...최소 2인부터 최대 15인까지 참여

곡성군이 오는 5월 31일까지 섬진강 물명 트레일 워킹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섬진강 물명 트레일 워킹은 힐링 에코 여행자들을 위해 곡성군이 지난해 선보인 지역 체류형 여행 상품이다. 별다른 홍보도 없이 입소문만으로 운영 첫 해 600여명의 여행자들이 다녀갔다. 우리나라 5대강 중 유일하게 하구둑이 없어 자연 생태 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섬진강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오롯이 느낄 수 있다. 2인부터 최대 15인까지 출발할 수 있는 소규모 패키지 여행이다. 일정 내내 로컬 호스트(가이드)가 동행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여행자들은 더욱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대신 사진 미팅을 통해 여행자 스스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배려깊은 안내가 제공된다.

1박 2일 중 첫째 날은 여유롭고 섬진강을 걷고 즐기는 일행이다. 곡성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주전부리 꾸러미와 함께 곡성 여행 기념품이 담긴 에메니티가 제공된다. 걷다보면 사전 미팅에서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섬진강을 바라보며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시락이 배달된다. 둘째 날 아침에는 숙소로 조식이 배달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국립곡성치유숲에서 여행 인원에 따라 숲 자을 키트 또는 숲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충북 금산에서 방문한 여행객 A씨는 "작년 가을 여행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올해도 다시 찾았어요. 역사나 기대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어요. 가을 섬진강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라고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협약식 개최

담양군문화재단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담양문화원에서 문화도시 및 도시정책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담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 등 4개 기관과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협약식 및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성된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는 담양군문화재단·문화도시추진단을 중심으로 담양군도시재생지원센터, 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 담양문화원, 담양음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주민위원회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담양군민을 대상으로 담양군 지역 내 추진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사업들을 소개하는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군민은 행사 당일 담양문화원 인문교육관으로 방문하면 된다. 문화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과 설명회가 중간지원조직 간 관계를 탄탄하게 하고 주민에게 기관의 활동과 사업을 소개하는 자리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수목원, 생태에서 배우는 힐링 숲체험 운영



구례군은 전라남도 공립수목원 제1호인 구례수목원에서 '생태에서 배우는 힐링 숲 체험'을 지난 23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숲해설사, 산림치유지도사, 손끝공예가가 참여해 ▲구례수목원 알아

가기 ▲숲에 사는 생물과 만남 ▲숲에서 느껴보기(요가, 명상) ▲야생화 한 지부채 만들기 등 부모와 자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활짝 웃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힐링 숲체험은 구례군에서 매월 계절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전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가족들이 구례수목원에서 힐링 숲체험을 통해 자연의 기운을 듬뿍 채워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 SPS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엔텍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관